

CEO CHECK LIST

삼성생명
CEO 체크리스트

기업의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법인 CEO

기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리스크와 혹시 모를 CEO 부재 시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삼성생명 법인전문가와 함께 중요한 포인트들을 체크해 보세요.



CHECK POINT

YES NO

-
- 01 법인설립시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Y ☐ N ☐
타인을 주주로 하셨습니까?
- 02 가지급금의 적절한 활용 및 처리 문제로 Y ☐ N ☐
고민하십니까?
- 03 이익잉여금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법에 대해 Y ☐ N ☐
고민하십니까?
- 04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Y ☐ N ☐
- 05 퇴직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Y ☐ N ☐
마련하고자 하십니까?
- 06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Y ☐ N ☐
- 07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Y ☐ N ☐
- 08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노무 관리에 대해 Y ☐ N ☐
고민하고 계십니까?
- 09 대표님과 법인에 유용한 보험계약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Y ☐ N ☐

- 현재 법인의 주식지분 중 타인의 지분이 있습니까? YES ☐ | NO ☐
- 수탁자의 출자금에 법인 대표의 개인계좌로부터 이체되었습니까? YES ☐ | NO ☐
- 명의신탁주식 환원 前 배당 혹은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습니까? YES ☐ | NO ☐

법인설립시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타인을 주주로 하셨습니까?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필요한 이유

상법상 최소 발기인수 충족을 위해 분산해 놓은 지분이 향후 명의수탁자의 사망 혹은
변심으로 인해 법인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무엇이 문제인가요?



명의수탁자의 변심 위험
신탁자의 사망 /
법인의 자산가치 증가



명의수탁자의 사망 위험
상속인들의 주식환원 여부



가업상속공제
적용 어려움



증여세 발생
가능성 증가

- 현재 가치급금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 1억원 미만 ☐ 5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가치급금 인정이자를 알고 계십니까? YES ☐ | NO ☐
- 가치급금 해소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YES ☐ | NO ☐

가치급금의 적절한 활용 및 처리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가치급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원칙적으로 가치급금은 결산 시, 해당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관행상 또는 영업상 가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득이하게 해당 계정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 및 대표님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추후 세금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가치급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청산발생 시, 상여처리로 인한 갑작스런 소득세 과다 부담 위험



근로소득세 부담 및 이자비용 처리 불가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가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가치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개인 이자부담 증가 및 법인세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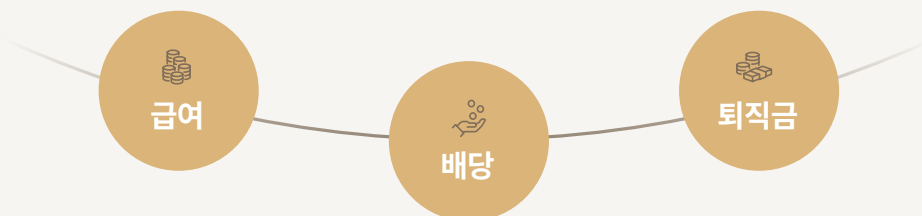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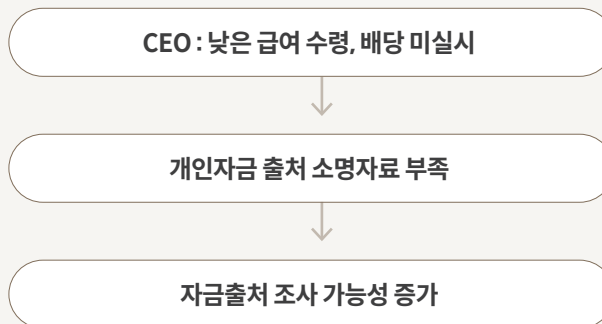
- 대표님의 적정 급여를 알고 계신가요? YES ☐ | NO ☐
-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가족들의 적정 급여도 알고 계신가요? YES ☐ | NO ☐
- 지분분산 이후 배당 시 세금절감효과에 대해서 아시나요? YES ☐ | NO ☐

이익잉여금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법에 대해 고민하십니까?



적정한 급여수준 및 다른 소득확보가 필요합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낮은 급여를 받거나 배당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산구입 및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대출을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빌려서 사용하는 가자금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익잉여금 활용을 통해 적정 수준의 급여 인상과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회사를 어떻게 승계하실 계획인가요? ☐ 신규법인 ☐ 지분양도 ☐ 지분증여 ☐ 지분상속 ☐ 법인청산
-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YES ☐ | NO ☐
- 매년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는 하고 계신가요?..... YES ☐ | NO ☐
- 특정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YES ☐ | NO ☐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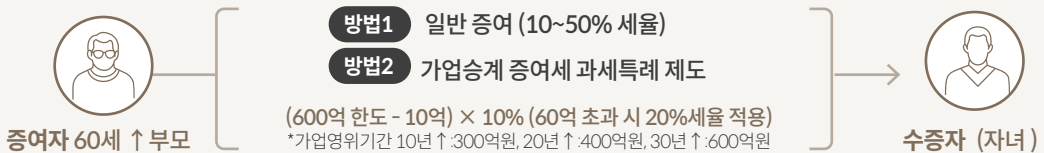
가업승계는 대기업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승계에 대한 사전 준비는 규모가 큰 대기업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준비도 없이 갑작스레 유고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 및 대출금 상환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또한 자금부족 상황에 직면할 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족간의 분쟁이나 경영권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업승계 전, 주식가치 평가는 필수입니다.

법인의 주식가치는 매년 변동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증여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매년 회사의 주식가치를 확인하여 주식가치가 낮아진 시점, 증여를 활용한 지분 이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사전 요건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 미만)
	증여자 :	60세 이상 지분 40% (상장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경영
사후 요건	수증자 :	신고기한 내 가업종사 &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 :	주업종 유지, 지분 · 대표이사 유지, 휴폐업 금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일반 증여 세부담 비교

구 분	일반증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세 율	10~50%	10~20%
공제금액	성인자녀 기준 5,000만	10억
30억 증여 시 예상 세금	9.9억	요건 충족 시 2억

※ 가정 : 성년자녀 1인, 사전증여재산 無

※ 본 자료는 단순예시이며, 개개의 사안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비용처리 문제로 고민중이십니까? YES ☐ | NO ☐
- 법인정관에 별도의 임원퇴직금 규정을 마련하셨습니까? YES ☐ | NO ☐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아시나요? YES ☐ | NO ☐

퇴직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십니까?



퇴직금의 장점을 알고 계신가요?

퇴직금제도는 매년 비용처리 되는 퇴직연금과 달리 지급시에 일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긴급자금 필요시 법인자금으로 활용가능합니다.

구분	퇴직연금제도 (사외적립)	퇴직금제도 (법인명의 보험가입)
납입/운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납입 · 납입 시 금융기관에 예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납입 · 지급 전까지 법인 사내 자금
법인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 시: 매년 비용처리 · 지급 시: 비용처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 시: 자산으로 처리 · 지급 시: 일시비용처리
과세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수령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없음 · 명의변경시 비과세 기산점 변경
중간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사유로만 가능 (주택구입/장기요양/천재지변 등) 	법정사유로만 가능 (주택구입/장기요양/천재지변 등) ※ 2016.11 이후 퇴직하는 경우부터 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통한 퇴직금 정산사유 삭제
중도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 법정사유로 가능 · DB: 불가능(담보대출) 	가입 6개월 후부터 언제든지 인출가능 (법인자금) ※ 중도해지금액 또는 중도인출금액은 납입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처리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P로 의무이전 (해지가능) · 55세 이전 연금수령 불가 	상품가입조건에 따라, 일시금/연금 등 수령가능

중소기업 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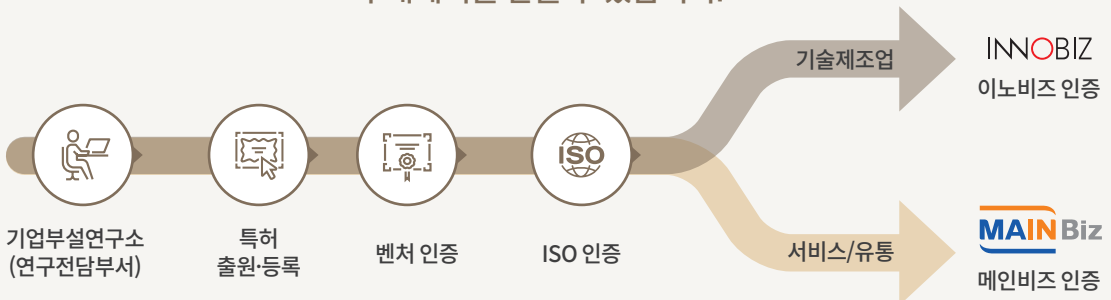
CHECK POINT

-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YES ☐ | NO ☐
-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혜택을 알고 계십니까? YES ☐ | NO ☐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인증제도를 통해 여러가지 세액공제 및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연구개발비 발생액의
25% 세액공제

- ① 연구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 ② 연구용 견본품 · 부품 ·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 ③ 연구 · 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중대재해처벌법 준비하고 계십니까? YES ☐ | NO ☐
- 단체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YES ☐ | NO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고 계십니까?



'24.1.27일부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100인 미만 업체의 산업재해사망(사고, 질병)비중이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상뿐 아니라 CEO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영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2023.4.27(목) A27면 사회

'중대재해 2호' CEO 법정구속...경영 리스크 현실로 닥쳤다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구속된 가운데, 산업을 모은 은유파트너스 대표의 집행유예 선고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예상은 뛰어넘는 벌임 관례로 형사재판 위임에 노출된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제강은 은유파트너스와 마찬가지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중대재해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구속된 CEO가 됐다. 지난해 3월 산비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조작해 발열판을 들어 올렸는데, 크레인의 고리와 발열판을 연결하는 섬유벨트가 끊어졌다. 이로 인해 팔로 떨어진 발열판에 깔려 근로자 한 명이 숨졌다. 섬유벨트가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한국제강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ASO)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

한국제강 대표, 왜 무거운 처벌 받았나
근로자 유족과 합의했는데도 구속 기업들, 예상밖 판결에 '초긴장'

기온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놓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회사가 과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산업재해로 여러 차례 적발된 사실을 주목했다. 한국제강 대표 A씨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2011년과 2021년, 올해 2월 벌금형을 받았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재판부는 전격도 내려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종전에 발생한 사고로 형사재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요 기업

회사명	사건 개요	판결 결과
은유파트너스 (1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철재 피아프에 맞아 사망	집행유예 2년
한국제강 (1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철재 피아프에 맞아 사망	징역 1년
신원건설 (1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철재 피아프에 맞아 사망	징역 1년
신원건설 (1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철재 피아프에 맞아 사망	징역 1년
신원건설 (1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철재 피아프에 맞아 사망	징역 1년

리 A씨가 장에 1년을 선고받은 결정적인 이유다.

법정에서는 한국제강과 마찬가지로 과거 산업재해 전력이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구속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 대형 도판 변호사는 "과거 사고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얼마나 마련했는지, 법

정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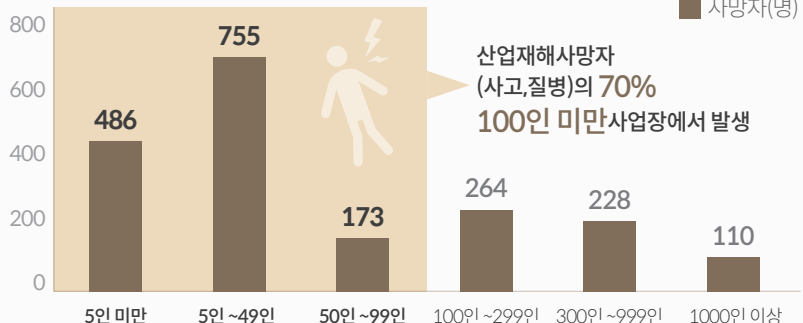
한 대형 도판 변호사는 "은유파트너스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유족과 합의했다면 법정구속은 면할 수 있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다"

“사고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정부와 달리 법정에선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면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CEO가 연거푸 처벌받게 되면서 기업들의 우려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14건 모두 대표나 그들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말 전도원 삼표 그룹 회장이 경영사건 심판소장의 제직장 분과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들 총수도 경영사 사고로 심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 2023년 사고 사망자 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23년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사망자(사고, 질병)의 70% 100인 미만사업장에서 발생

* 해당 통계는 재해발생일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

- 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YES ☐ | NO ☐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주고 계십니까? YES ☐ | NO ☐
-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셨습니까? YES ☐ | NO ☐
- 연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고 계십니까? YES ☐ | NO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노무 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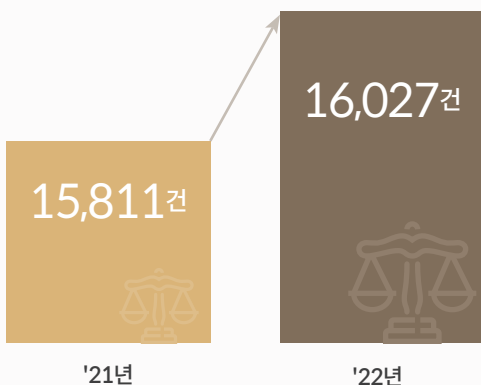
노무리스크에 대비하셔야 하는 이유

통상임금, 정년 연장, 주52시간 등의 이슈로 노무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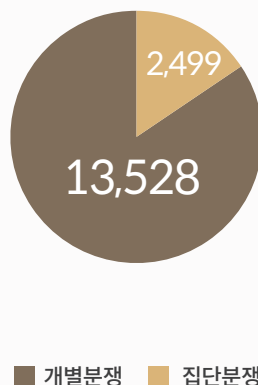
✔ 노무분쟁의 지속적인 증가

- 2022년 노동분쟁 사건 16만건 처리
- 노동분쟁 매년 증가 중



✔ 더욱 쉬워진 노무분쟁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으로 개별 노동분쟁사건 지속증가중
'22년 13만건(전년비+741건)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22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

CEO에게 유용한 보험

CHECK POINT

- CEO와 경영진의 유고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YES ☐ | NO ☐
- 임직원의 상해 및 건강보험을 법인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아십니까? YES ☐ | NO ☐
- 납입보험료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법인보험상품을 알고 계십니까? (*세법요건 충족 시) YES ☐ | NO ☐
- 현재 법인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내용을 상세히 아십니까? YES ☐ | NO ☐

대표님과 법인에게 유용한 보험계약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법인에게 유용한 보험계약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위험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업과 대표에게 보험은 인적자산 및 물적자산에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대비하고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 기업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CEO에게 유용한 보험

단체재해보험



법인건강보험



CEO정기보험



퇴직연금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예금자보호 안내 : 보험)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예금자보호 안내 : 퇴직연금(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삼성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모집종사자는 삼성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로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았으나 청약을 권유하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사항은 고객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본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